

'왕궁리 유적' 정비 · 복원

익산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일대 문화재보호구역 신규 지정 따라

익산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왕궁리 유적' 일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돼 정비와 복원에 집중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왕궁 주변 생활유적 조사를 본격화하고 문화재 보존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왕궁리유적은 조사와 정비, 경관 복원 등을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새로 지정된 곳은 세계유산 완충구역인 국도 1호선 구간과 고도 역사문화환경 회복을 위해 지정되었던 고도 특별보존지구 일부로 면적은 71만636㎡다

이들 기존 문화재 구역 21만8000여㎡보다 3배 이상 큰 규모다. 기존에는 궁궐 담장 내부(21만8155㎡)가 문화재 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신규로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는 왕궁의 서편과 왕실 사찰인 제석사와 연결되는 동편, 남편의 탐리마을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국도 1호선 아래

서측 공장 바깥 구조와 왕궁 외곽 생활유적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도 1호선 지하화 등 왕궁리유적 경관 회복사업을 가시화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문화재청과 함께 오는 2028년까지 왕궁의 전체적인 구조를 규명하고 경관을 회복하기 위한 발굴조사와 복원 ·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왕궁리유적은 백제 무왕대(AD 600~641) 왕궁안이 밝혀져 1988년 지방 문화재에서 국가 사적으로 승격됐다.

지난 2015년 동아시아 왕궁 건설의 원리와 기술을 활발하게 교류하고 공유했음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한편 왕궁리유적은 현재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건물지와 후원, 정원 유적 정비, 경관 조영 설치가 완료됐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는 황철호 부시장이 군산시외버스터미널, 군산역 등 다중이용시설과 군산디오션시티 더샵 주택 건설현장에 방문하고, 코로나19 방역대응태세 및 방역대책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했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일선 현장점검

군산 부시장, 시외버스터미널 등 다중시설 방문 · 관계자 격려

군산시는 황철호 부시장이 군산시외버스터미널, 군산역 등 다중이용시설과 군산디오션시티 더샵 주택 건설현장에 방문하고, 코로나19 방역대응태세 및 방역대책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것으로 군산역·시외버스터미널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안내와 마스크 착용 홍보물을 배부하며 방역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 군산디오션시티 더샵 건설현장을 방문, 건설 근로자 방역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폭염으로 인한 현장 근로자들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그늘, 휴식, 물) 준수를 요청했다. 황 부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폭염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이 더욱더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산도 코로나19 대응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배달의 명수, 8월 3일까지 홈캉스 이벤트 실시

군산시는 '배달의 명수'가 여름휴가를 맞아 30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5일간 홈캉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집에서 홈캉스를 통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홈캉스 이벤트는 30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5일간 매일 500명, 총 2,500명에게 2,000원 환인을 제공한다. 특히, 주문 시 2,000원이 자동으로 환인이 되는 방식으로 소비자는 별도로 쿠폰을 다운받지 않아도 된다. 이벤트 외에도 배달의 명수는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로컬푸드와 슈퍼마켓의 입점을 위한 고도화 개발(배달의 명수 시즌2)을 추진 중이

다. 올해 말에는 배달의 명수 앱을 통해 음식뿐만 아니라 신선한 지역 먹거리와 동네 슈퍼마켓을 이용할 수 있을 예정으로 배달의 명수가 우리 삶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고병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감염경로 미상 많아

군산시, 7월 발생자중 N차 감염43명... 개인위생 수칙 준수 요구

군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경로 미상이 많아 개인위생 수칙 준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날 군산 352번, 군산 353번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7월들어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까지 72명으로 이중 감염경로 미상이 29명이다.

올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달은 지난 4월 64명으로 5월(15), 6월(14) 감소세를 보이다 4차 대유행

과 맞물려 확진자 발생이 증가했다.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N차 감염은 43명으로 지난 9일부터 1주일 사이에 집중됐지만 감염경로 미상은 29명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개인위생 수칙 준수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7월과 8월은 휴가철과 맞물려 시민들의 타지역 이동과 외지인들의 군산 유입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소모임의 자제가 요구되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하고 방역을 강화하는 등 여러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며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휴가철과 맞물려 시민들의 타지역 이동과 외지인들의 군산 유입이 빈번한 만큼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가급적 소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차량등록사업소 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자 검사유효기간 연장

군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과태료 및 시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검사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정착되기까지 중점 홍보를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검사유효기간 연장 대상은 차량의 도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장기간 정비가 필요한 차량과 폐차, 또는 병원 입원,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이 곤란한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과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 자가격리자, 고위험군(만 65세이상, 만성질환자, 임신부·대상자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며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사전 신청으로 검사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아동보호팀 신설 전담공무원 배치

군산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복지환경국 아동청소년과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2021년 하반기 인사아동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명을 배치했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충,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 등 전문교육을 받은 후 본격적인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아동보호팀의 주요 업무는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피해 아동 분리, 보호조치 등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또 경찰·교육지원청·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연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빈틈없는 아동학대 보호 체계를 구축해 아동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긴급생계지원을 하고자 2021년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모집인원은 생활방역 지원 등 총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신청접수는 오는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5일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군산시민으로서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이며, 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을 경험한 자는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로 1일 4시간(주 20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시급 8,720원과 부대비 5,000원, 주·월차수당이 지급된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생활방역 지원, 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 공공휴식공간 개선, 공공업무 등의 사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